



오식도동 일원에 새만금 어린이랜드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임시 개장. 바운싱돔 및 놀이시설을 시범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리 인원을 확충해 오는 19일부터 개장한다.

# 마음껏 '점핑'...놀이공간 조성

###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에 '새만금 어린이랜드' 내일부터 개장

#### 도내 최초 바운싱돔 설치, 인라인 이용 테마 놀이마당 등 조성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군산시가 조성한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오식도동 일원에 부지 5만6,000㎡ 규모의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임시 개장, 바운싱돔 및 놀이시설을 시범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리 인원을 확충해 오는 19일부터 개장한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내부에는 관광객과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을 약 200분의 1로 축소해 생생한 모습이 조성돼 있다.

며 전북 최초로 설치한 바운싱돔(전국 7개소 운영)은 특정한 막 재질에 공기를 주입해 공중으로 도약하면서 놀 수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퀵보드, 인라인, 자전거 및 무선조종 자동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테마 놀이마당과 비행기·자동차 모형의 조형 놀이대, 그물놀이대 등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으며, 방문객들의 휴식을 위한 잔디 광장과 콘크리트 박스 쉼터 등도 조성돼 있다.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를 기념하고 새만

금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민방의 준비를 했다"며 "부지 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미비하지만 추후 방문객들의 요청 사항들을 수렴해 더욱 만족도 높은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오는 5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외시설 임을 감안해 우천, 폭우, 폭염 등 기상주의의 발효 시에는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군산=김정훈기자

### 익산시, 데코산업에 귀금속보석 우수제조 인증서 수여

익산시는 17일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된 (주)데코산업(대표 이관영)에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4월 18일 익산귀금속보석 산업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귀금속보석 우수 제조업체로 영등동 귀금속단지에서 위치한 (주)데코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데코산업은 미국, 일본, 홍콩, 두바이 등 70여개 해외 각국에 금, 은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전문기업으로 이관영 대표는 약 30여 년 동안 귀금속 보석 산업에 몸담아 오며 우리 지역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날 수여식에서 (주)데코산업 이관영 대표는 "익산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익산시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보석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데코산업 이관영 대표께 존경을 표한다"며 "보석도시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보석의 명성을 이어갈 우수제조업체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수제조업체 선정으로 기업이 더욱더 발전하여 보석 산업이 활성화될 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와 함께 시제품개발 지원,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등이 지원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10월까지 산림지역 지상방제

익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 산림지역 대상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방제활동은 월동난의 부화시기에 맞춰 5월 중 착수하며 10월까지 병해충의 발생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해충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공동방제기간을 정하고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산너벌레 등 돌발해충의 방제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약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양봉, 양잠, 축산농가 등에서는 방제기간 전·후 가족의 방목, 방봉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방제 시행 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약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니스	

## '사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요'

### 7월 11일 인구의 날 맞아 지역주민들 대상 군산시, 명랑가족 사진공모전...23일부터 신청접수

군산시가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 명랑가족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최근 결혼 및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속 사진 1~2점을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precorio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 "산아제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던 과거의 국가주도적인 정책에서 벗

어나 시민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자 가족사진 공모전을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54-23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명랑가족 사진공모전 외에도 육아용품 프리마켓, 육아맘 힐링특강, 시민토론회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농기센터, 벼 소식재배 이양 연시회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17일 오산면 오산리 들녘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농업인 100여 명과 함께 벼재배와 쓰러짐에 강한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 이양 연시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소식재배는 관행 이양과 달리 식부 자세의 안전과 뿌리활착, 그 후 초기 생육을 위해 균형작업에 주의를 기울인 다음 육묘 상자당 병씨 250~300그람을 밀파하여 일반 이양가가 아닌 전용 이양기를 구입하여 주당 3~4본

씩 평당 50주 심는 방법이다.

관행 이양은 1ha 기준으로 육묘상자 250~300상자, 파종 및 운반시간은 6시간 육묘 자체비는 98만원인데 반해 밀파 소식재배는 상자수는 3분의 1, 파종과 모종 운반시간은 4시간 가량 줄어들고 육묘 자체비(상토, 육묘상자, 하우스자재 등)는 40만원으로 50%를 절감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과 재비용 재배가 가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양 후 제초나 이삭거름 사용, 병

해충 방제는 관행재배와 동일하며 특히 이양을 했을 때 햇볕이 잘 들어 벼가 튼튼하게 자라 뿌리 내림이 좋고 출기가 두꺼워져 여름철 태풍, 폭우 등 기상재해시 도복과 병해충에 강한 장점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커지고 수확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단지에 신동진, 보람참벼 등 3가지 품종을 시범 재배하여 생육을 관찰하고 수확기 평가회를 통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내년도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 전국체전 2차 운영위원회 열어

### 준비상황 · 종합운동장 점검 북한팀 초청 건의문도 채택

2018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17일 2018 전국(장애인)체전 메인스타디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익산경찰서장, 익산세무서장, 익산지방국립공원리청장 등 전국(장애인)체전 익산시 운영위원회 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운영위원회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150여일 남은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시설, 홍보, 교통, 숙박, 환경,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과 토의를 거쳐 북한팀 초청 건의문을 최종 채택했다.

전국체전 운영위원회는 채택된 북한팀 초청 건의문을 이춘석 국회의원과 조배숙 국회의원을, 대한체육회장, 전북도 전국체전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전달하여 북한팀이 초청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나서 중앙부처 등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운영위원들은 전국(장애인)개 폐회장인 익산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장애인시설(엘리베이터, 장애인링크프, 장애인판석 등)과 관람석, 본부석 및 VIP실 등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에게 끝까지 꼼꼼히 잘 챙겨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2018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2018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스포츠 장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22일 2018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창립총회를 통해 당연직인 익산시장을 중심으로 고문단과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등 부위원장단과 언론계, 금융계, 산업계, 체육계 등 위원을 포함 총 99명으로 구성하여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